배우며 일하며

한일합섬(주) 의무실

박 영 미

어느새 창문을 활짝 열면 초가을의 향긋한 내음과 맑은 공기가 싱그러운 하루일과의 시작을알린다.

회사 들어가는 입구의 2층에 자리잡은 조금 넓지만 아담한 의무실.

처음 이곳 의무실과 인연을 맺어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과 정이 들기 까지는 때로는 즐겁고 때론 어려웠던 일도 많았던 것 같다.

일반병원과 의무실의 차이점을 조금씩 느끼며, 일반병원은 치료대책이 주임무지만 의무실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더욱 중요한 분야인 것 같다. 보건간호에 대한 책자들은 펼쳐 보면서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와 보건관리를 수행해야 함은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우리 사업장의 여성근로자는 대부분이 회사내의 학교에서 배우면서 일하는 학생들이다.

배우면서 일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며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경험 없이는 이해 하기가 힘들 것 같다. 그런 힘든 생활속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작은 소망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볼 때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낀다.

한증막같은 작업장에서 열을 시키기 위해 갖다 놓은 얼음덩어리의 녹아내리던 물방울도, 여름이면 서서히 발생하는 근로자들의 무좀치료를 위해 통풍이 잘되는 양말과 신발을 착용토록 하고 발의 청결을 강조하던 한여름동안의 보건교육도, 이제는 높고 맑은 하늘과 하늘거리는 코스모스 꽃잎속에 숨어 가는 것 같다.

의무실에서 일하며 나의 작은 도움이나마 환자의 미소를 발견할땐 보람을 느끼지만 반면 내 능력으로는 그 이상의 도움을 줄 수 없을때는 안타까움을 느낀다.

고되고 힘들게 배우며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작은 질병의 고통이라도 덜어주고 싶은 심정에 앞서서 산업장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맡고 있는 보건담당자로서 부족함을 갖게 되지만 다음 여름에는 근로자들이 고생하는 무좀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환경개선과 예방에 대한 보건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며 게을리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해 본다.

언제나 항상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는 간호원이 되어 의무실을 찾는 환자나 상담자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이야기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젠 꽃향기 가득찬 창문을 닫아야 될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의 산업보건이 구석구석까지 더욱자리잡길 바라면서.